

올해로 해방 60년이 된다. 우리는 식민지 수탈과 전쟁으로 인한 가난과 폐허로부터 눈부신 경제성공을 이룩하였으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초일류기업과 상품, 브랜드를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교육의 힘이었다. 앞선 세대들은 인간은 오직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모름지기 사람은 배워야 산다'고 믿었으며, 그것이 곧 대한민국의 진보라고 믿었다. 이런 믿음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했다는 점에서 오늘날 제도 교육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소홀히 평가되어서는 안된다.

교육받은 훌륭한 개인이 많다는 것은 소중한 사회적 자본이며,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희망이기도 하다. 교육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식기반 정보사회로 생산양식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문맹률이 세계 최저인 나라, OECD국가 중에서 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단연 상위권이고, 미국 대학이 배출한 외국대학 출신 박사 중 서울대학교 졸업생이 가장 많으며,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대학입학 정원이 더 많은 나라, 그런 나라에서 지난 수능시험에서 일부 수험생들이 핸드폰을 이용하여 컨닝을 하였다. 고등학교



불자 세상보기

구 승 호
동국대 윤리학 교수

도덕의 강마져 오염되면

교 교사가 학생의 시험지를 대리로 작성해주고, 학부모를 상대로 점수 장사를 하는가 하면, 더 나아가 유력 인사와 부유층 자제들의 성적을 부정당한 방법으로 올려주었다. 지방의 일부 의과대학 대학원은 의사들을 상대로 석·박사 학위 장사를 하고, 대학생은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대리 출석·시험을 의뢰하였으며, 대기업의 강성 노동조합은 취직 장사를 하였다.

이 모든 탈도덕적인 행태의 원인으로 사람들은 '은 학벌사회, 입시제도, 돈 중심적인 가치관 등 저마다 그럴싸한 원인을 제시한다. 그러나 근본

적인 원인은 지식과 창의력 교육에 주목할 나머지 인성, 도덕 교육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지식과 정보의 전달 속도가 느렸던 산업사회에서는 어떤 도덕적 행위지침은 장기간 유효했던 반면, 정보사회에서는 도덕의 근거설정이 어려워지고, 옳은 것·좋은 것의 기준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도덕적 정당화가 지속되기 힘들게 되었다. 자고 일어나면 '가져 있는 것'의 기준이 변하는 가치 불확실 사회에서 '많이 아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인격적으로 품위 있는 사람'보다 존경받는다. 인터넷과 개인 휴대통신의 발

달은 모든 공적인 의사소통을 사적 담화(私密化)로 격하해버리고, 첨단 네트워크 기술은 신뢰에 기반한 현실공간의 의사소통보다는 가상 공동체의 비언어적 소통으로 대체된다. 한마디로 기술 의존적 사고방식이 도덕적 품성을 대신한다.

기술의 세계화는 전통을 해체하였고, 이는 전통에 뿌리내려 있으면서 사회통합의 든든한 끈이었던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렸다. 권위의 해체는 존경할만한 어른이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다. 대통령, 경찰, 소방수, 선장, 선생님, 아버지의 권위가 보호되지 않는 사회에서 도덕적 강제는 무기력하기만 하다.

지금 우리 사회는 도덕적 대 붕괴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아직 새로운 사회질서는 모색되지 않고 있다. 우리가 누리는 성취와 세계일류는 고도한 불신의 땅에 세운 바벨탑에 불과하다. 세상은 결코 퇴행하지 않으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점에서 정의로운 척하는 자, 힘 있는 자, 많이 가진 자일수록 부정적이고, 부도덕하다는 것이 인간사의 법칙이라고 자괴해서는 안된다.

후기 기술사회의 인간 교육은 문명을 도덕화하는 일이다. 이를 위한 '강제된 공적 제도'를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 기술 문명의 도덕화는 성숙한 시민사회, 인류 국가로 가는 길에 건너쳐 않으면 안 되는 필연의 강건이다.

이렇게 들었다 '사기 조심의 달'

선정(鑑定)을 뒤는 사람은 마땅히 탐욕이 빛는 재앙을 관찰해야 하고, 또 이를 벗어나는 일의 공덕에 대하여도 관찰해야 한다. 탐욕은 벌린 물건과 같으니 형세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탐욕은 해커비와 같으니 사람을 의혹하게 한다. 탐욕은 어리석음과 같으니 정념을 잃게 한다. 탐욕은 형구(刑具)와 같으니 마음을 묶어 매는 까닭이다. <해탈도론>

공정거래위원회가 2월을 '사기 조심의 달'로 정했다. 무슨 무슨 날도 많고 달도 많지만 '사기 조심의 달'이라니...? 오죽 사기범죄가 많으면 이렇게 정했을까. 공정거래위는 '사기 수법과 대처 방법'을 예시한 자료까지 내놓았다. 대표적인 사기수법 중 첫째가 공짜선물이나 도움을 주는 것이다. 받은게 있으면 뭔가 보답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것. 둘째, 앞서 한 말에 얽매게 한다. 사기꾼들은 처음에는 사소한 것에 동의하게 만든 뒤 나중에야 최초의 동의사항에서 한발짝 더 나아간 제안에 동의하게 한다. 셋째, 사기꾼들이 유혹하는 외모가 번드르하고 매력적이다. 넷째, 전문가가 보증했다고 하면 무조건 믿는 경향을 이용한다. 다섯째, 마지막 기회라고 유혹한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발생하는 사기범죄가 24만건이 넘는다고 한다. 불경기일수록, 사회가 혼란할수록 범죄가 잘 팔리고 도박 등이 성행한다는 조사결과가 있는데 사기범죄가 국성을 부리는 이유를 장기불황과 사회맞춤 할 수 있을까.

아무나 사기를 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유없는 공짜와 '대박'을 좇는 허황된 마음이 사기꾼을 부르는 것은 아닐까. 씨앗 뿌리고 기르는 수고는 하지 않고 달디 단 열매만 열리기를 바라는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 사기수법에 걸려 넘어가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법구경>에서도 "지붕잇기를 성기게 하면 비가 세는 것처럼 마음을 조심해 가지지 않으면 탐욕이 이를 뚫는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경숙(여주부정)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용기와 실천력 본받을 일

지을 스님의 환경관이 어떻게 간에 자신의 신념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 실천력은 비범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누구나 이런 저런 평가와 말은 할 수 있지만 남을 위해 만 원짜리 지폐 하나라도 내놓는 실천은 힘든 법이다. 그런데 지을 스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천성산을 살리려 한다.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 그 용기와 실천력을 본받을 일이다. 스님이 건강하시길 바란다.

신남에 따라 산다는 것(붓다뉴스)

KBS 골든벨 능인고에서 울리다

지난 일요일 TV에서 골든벨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다. 불교계 학교인 능인고등학교에서 골든벨을 울린 학생이 나온 것이다. 44년부터는 김희태 군의 외로운 독주가 시작됐다. 그러나 김 군은 전혀 막힘 없이 50문제를 모두 맞춰서 덩달아 우리 가족들도 기뻐했다. 골든벨 팬인 7살 된 딸아이는 소리를 지르며 좋아했다.

화면에 잠깐 잠깐 스님 모습이 비치는 것도 한결 행복한 느낌을 갖게 했다. 아마 능인고가 불교학교라는 것을 모르는 이들은 스님의 모습을 의아해 하며 의문을 가졌을 것이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궁금한 것을 인터넷에서 찾는 것처럼 열심히 왜 스님이 있는지 찾아봤을 것이다. 불

교계 학교에서 TV에 출연하고 스님이 화면에 보인 것만으로도 불교 포교의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용상(대구시 수성구 중동)

작곡가 윤이상 기사를 읽고

현대불교 511호에 실린 윤이상의 삶과 음악세계 기사는 참 좋은 기사라 생각된다. 윤이상 선생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이자 현대음악의 거장이다. 간첩 사건에 연루돼 한국에 들어올 수 없었던 선생의 고뇌를 기사에서 느낄 수 있었다. 적절할 시기에, 불자들의 윤이상 선생에 관한 이해를 높여주리라 믿는다. 올해는 윤이상 선생의 서거 10주기이므로, 이제 명예회복은 물론, 그 흔백이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불자들의 원력을 모으자.

정지현(붓다뉴스)

청불회 이래서야

지난주 신문을 보다가 쓸쓸한 감정을 느꼈다. 청불회에 대한 기사였다. 회장직을 서로 깨리라는 내용을 보면서 문득 훌리르럽이 떠올랐다.

공직의 정점에 서있는 이들이 서로의 종교를 위해 모임을 만들고 활동을 하는 모습이 청불회의 모습과 비교가 되는 것은 왜일까.

물론 기사로 보서는 청와대와 불교계 사이에서 대북교양구의 역할을 하는 청불회장의 임직이라면 그 중앙감이라는 것이 낯타는 것은 이해하겠다. 다만 의무를 무겁다만 느끼고 말고 부처님 일이라는 생각에서 신심을 좀더 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기욱(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절에서 유치원 운영해야

우리집 바로 옆에는 원생 모집일이 다가오면 밤을 세워서라도 줄을 서서 입학권을 따내려는 인기 유치원이 있다. 엄마들이 약속같이 이곳에 아이를 보내려는 이유는 그곳이 성당에서 운영을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불자인 나도 고민을 하면서 우리 동네에도 절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해왔다.

그나마 가까운 아차산 영화사에 유치원이 있지만 불란란 교통편 탓에 차마 보낼 엄두를 내지 못했다. 결국 성당 유치원은 포기하고 집 근처 구립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으로 만족했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도심포교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포교는 결국 그 부모들까지 끌어들이는 방법이다. 절에서 어린이법회를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면서 불자로 끌어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고현주(서울 성동구 성수1가1동)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환경 생태 문제가 21세기 인류의 핵심적인 화두임을 체감하고 있는 우리에게 최근 조계종 환경위원회로부터 반기온 소식 이 들려오고 있다. 지난 1월 31일 송년 클럽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교구환경위원회 설치 의무화'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다. 물론 이것은 아직 결의일 뿐으로 종령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소정의 절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단일 회의장의 분위기와 종령을 다시 정비하도록 총무원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환경위원회 위원장 스님의 의지 표명으로 볼 때, 교구환경위원회의 설치 의무화는 곧 이루어질 전망이다.

풀이켜 보면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종령에 의해 2001년 12월 8일 발족하였다. 종단 환경정책의 수립과 시행, 사찰환경 분장사안에 대한 조정과 협의, 사찰환경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응, 환경보존과 관련된 각종 조사 및 연구 사업, 종단 환경 교육, 환경단체와의 연대 등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환경위원회의 주요 기능이다. 환경위원회는 그 후 사찰환경정착해에 대

교구환경위원회에 거는 기대

한 대응, 사찰오수처리시설의 환경부 협의, 방생 지침서 발간 및 친환경적 방생 홍보, 국립공원 제도 개선사업 등 결코 적지 않은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그러나 중앙 차원의 환경위원회 활동만으로는 각 지역의 사찰에 대한 직접적이고 빠른 대응이나 환경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 인지와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교구환경위원회 설치의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교구환경위는 해인사를 비롯하여 통도사, 용주사, 월정사, 화엄사 등에 이미 구 성되어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제는 이것을 전 교구에 확대시켜야 할 때다. 그리하여 스님들이 중심이 되고 환경전문가와 운동가가 함께 하는 교구환경위는 민간환경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내 환경관련 정부기관과 직간접적으로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환경생태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사후 대처보다는 사전 조율과 예방에 주력해 가야 할 것이다.

불교계는 '수경 스님 삼보일배' '지을 스님 단식' 등으로 이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환경교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터다. 교구환경위원회가 실질적인 활동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국불교를 '환경과 생명'을 살려내는 산 종교로 우뚝 세워나가기를 거듭 희망한다. ■박경준(동국대 불교학 교수)

'연대' 민영 심민섭

군포교 광음 울리기 시작한다

이것이 명품이다!

명품은 말하지 않습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는 산삼에양근이 함유된 제품으로써 그 효능과 품질로 말합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 시음 무료체험

전화주시면 일천분에 한하여 심마니 토종오가피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무료체험의 즐거움과 건강의 기쁨을 누리보세요.

심마니 토종오가피

중년의 건강과 활력을 부모님에게는 건강한 노후를 자녀에게는 몸과 정신을 튼튼하게 가족 건강이 행복의 최우선입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가 지켜드립니다.

상담문의 및 무료자료배송 02)455-1114

이주연F&B HYUN PUNG F&B CO., LTD.

하기척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중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중수사상!"

12품 팔상탐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호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책 가 내 용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중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탐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탐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탐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탐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중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주택중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토)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예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 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가 내 용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태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⑥ 조상대 천족, 연족 인체지영기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031)334-9490, 334-9491 야간: 031)706-3060